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 7. 29.(화) 14:00

이상덕 재외동포청장, 모국 찾은 재일동포 어린이들 격려

- 28일 재일민단 주최 ‘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’ 개최식 참석해 축하
- “여러분 부모·조부모, 한국 성장·발전에 큰 기여...직접 보고 느끼길”

-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모국을 찾은 재일동포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했다.
- 이 청장은 7월28일(월)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‘2025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’ 개최식에 참석해 “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부모님, 조부모님 세대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왔다”며 “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재일동포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”고 말했다.
- 그러면서 “이번 잼버리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아울러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, 앞으로도 자주 한국을 방문해 모국과의 인연이 지속해서 이어졌으면 한다”고 희망했다.
- 이 청장은 어린이들에게 “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지원하는 기관”이라고 눈높이에 맞게 소개도 했다.
- 이 잼버리는 2001년부터 격년으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가 주최해 열려왔고, 일본 전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~6학년 재일동포 어린이 약 200명이 참가한다.

- 이날 개회식에는 이상덕 청장을 비롯해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,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, 이인균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.
 - 김이중 단장은 개회사에서 “이번 잼버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뿌리인 대한민국을 더 가까이 느끼고,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면서 “오늘의 참가 어린이들이 미래의 청년 리더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 - 하형주 이사장은 “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올림픽파크텔에서 잼버리가 열려 더욱 뜻깊다”며 “참가 어린이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”라고 했다.
 - 이인균 부사장은 “이번 잼버리가 재일동포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,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-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이 잼버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. 어린이들은 재일한국인기념관을 견학하고,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서울 시내 주요 역사 유적을 탐방할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장	오현영	032-585-3195
		담당자	사무관	안지은	032-585-3199